

# 연중 제125주일

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?



##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

이주 혹은 이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자유  
(교황청 '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')

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 안에서  
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기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,  
환경이나 정치, 경제적 문제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도  
함께 가지고 있다.

그러나, 이주하지 않을 권리는 이주할 권리보다 우선한다.

##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주의 연속

성경은 인간의 이주가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,  
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 
이해하며, 이주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가르침

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특별히 기억하며,  
"이주하지 않을 권리"에 대해 묵상해 보자.



#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?

포도밭 주인: 하느님 / 포도밭: 하늘나라

일꾼: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

한 데나리온의 값: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한 값 = 영원한 생명

“

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 
당신에게처럼 품값을 주고 싶소. (마태 20,14)

”

하느님께서서는 나중에 회심하고 당신께로 돌아서는 모든 죄인들마저도  
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시며,

하느님이 주시는 축복, 곧 영원한 생명은 모든이를 위한 것이고  
그 축복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일하다.

“

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(마태 20,7)

”

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하느님을 늦게 알게 된 것은  
아무도 하느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.

중요한 것은 그분이 포도밭으로 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갔다는 사실!



##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

하느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므로

그 누구도 하느님의 일 방식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없다.

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을 죄에서 구해내어

당신 포도밭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 뿐!

“

만나 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.  
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. (이사 55,6)

”

오늘 복음에서 포도밭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 이들도

마지막 다섯 시까지 일을 찾고자 헤매고 있었기 때문.

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결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.

“

... 내 길은 너희 길 위에,  
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. (이사 55,9)

”

하느님을 찾아 나서면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내어 맡겨야 한다.



##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

세상이라는 장터에서 일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

어떤 이들은 이른 시간부터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,

어떤 이들은 장터에 별 일 없이 서 있다가 하느님을 만나며,

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분을 만나기도 한다.

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느님을 만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.

“

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 
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. (필리 1,20)

”

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바오로의 모습.

바오로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으나,

어떤 처지에서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한다.

어떤 처지에서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을 위하여,

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는

하느님께 반드시 데나리온 한 닢을 받게 될 것이다.